



2013년 7월 5일

투자전략 Daily

-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2011년과 2013년의 차이: 선진국 실물수요

• 이머징마켓 동향

상해종합 하루 만에 반등, 2000p 회복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비아트론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NHN 외 5개 종목

• 산업분석

건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처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6/27(목)	06/28(금)	07/01(월)	07/02(화)	07/03(수)	07/04(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34.70	1,863.32	1,855.73	1,855.02	1,824.66	1,839.14	
	등락폭	51.25	28.62	-7.59	-0.71	-30.36	14.48	
	등락종목	상승(상한)	746(3)	632(4)	467(4)	431(3)	196(3)	482(3)
		하락(하한)	116(3)	198(1)	355(1)	380(1)	634(1)	316(0)
	ADR	66.45	72.76	75.40	78.87	77.08	83.32	
	이격도	10 일	99.54	101.23	100.97	101.18	99.87	100.73
		20 일	96.71	98.58	98.55	98.87	97.68	98.77
	투자심리	40	40	40	30	30	40	
	거래량 (백만 주)	286	251	221	483	406	309	
	거래대금 (십억 원)	4,189	4,465	3,038	3,896	3,774	3,093	
코스닥	코스닥지수	512.25	519.06	527.81	526.92	521.31	525.22	
	등락폭	19.18	6.81	8.75	-0.89	-5.61	3.91	
	등락종목	상승(상한)	746(16)	632(7)	467(7)	431(5)	196(7)	582(10)
		하락(하한)	116(1)	198(0)	355(3)	380(1)	634(2)	308(1)
	ADR	63.53	69.01	73.82	74.86	74.20	81.08	
	이격도	10 일	99.13	100.78	102.41	102.38	101.49	102.26
		20 일	95.53	97.36	99.47	99.70	99.02	99.99
	투자심리	40	40	40	30	30	40	
	거래량 (백만 주)	404	374	323	345	383	378	
	거래대금 (십억 원)	1,652	1,579	1,291	1,777	1,591	1,633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기 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유가증권	매수	1,553.8	724.5	806.4	194.2	94.7	243.6	72.5	19.2	182.267	32.8
	매도	1,552.3	809.3	721.1	168.5	82.4	240.4	36.6	27.9	165.4	34.8
	순매수	1.5	-84.7	85.2	25.7	12.3	3.2	35.9	-8.7	16.9	-2.0
	7월 누계	282.6	-316.6	5.7	35.8	-108.2	-25.3	-23.1	-8.7	135.2	28.3
	13년 누계	2,386.6	-10,303.0	8,446.4	1,877.5	889.7	-95.1	254.4	-59.9	5,579.8	-529.9
	코스닥	매수	1,487.7	87.3	59.0	10.2	12.6	17.0	2.5	1.4	15.4
매도		1,492.7	63.3	85.8	13.5	11.9	21.8	4.4	1.5	32.8	10.0
순매수		-4.9	23.9	-26.8	-3.3	0.8	-4.8	-1.9	-0.1	-17.4	7.8
7월 누계		-10.6	39.8	-33.0	-7.4	19.0	-19.5	-5.9	5.4	-24.5	3.9
13년 누계		-1,021.5	833.6	721.6	-57.1	86.1	399.1	-96.0	-49.7	449.2	-533.7

2011년과 2013년의 차이: 선진국 실물수요

7월 월간 밴드	1,780-1,930pt
2013년 연간 밴드	1,780-2,250pt
12MF PER	8.7배
12MF PBR	0.95배
Yield Gap	8.5%p

- ▶ 2013년 선진국의 리더십은 2011년 티파티 등 난맥상과는 차별화되고 있다
- ▶ 미국, 중국, 브라질 등과 달리 ECB, 일본은 낮은 물가에 힘입어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한다
- ▶ 선진국 수요 회복에 따라 강세가 나타나는 미국 증시 3종목 : 포드, CME, HP

2011년에는
선진국 증시도 이머징 증시와
마찬가지로 약세를
면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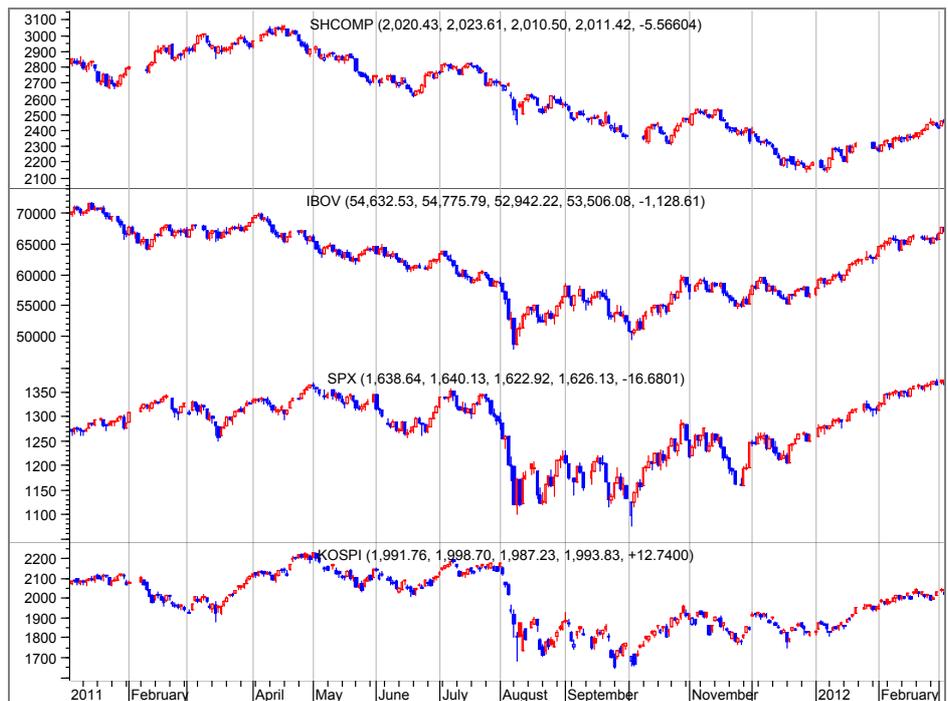
■ 2011년 증시, 이머징 증시 하락 이후 선진국 증시도 후행해서 하락했다

2011년 글로벌 증시는 이머징 증시가 인플레이션 부담, 반정부 시위 이슈로 선행해서 하락한 이후 선진국 증시가 후행해서 하락하는 패턴으로 이루어졌다. 2011년 상반기 중국, 브라질 등 이머징 증시가 긴축통화정책, 유동성 경색으로 약세가 이어졌음에도 미국 등 선진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조했었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에 유동성 경색이 유로존의 변두리(PIGS)까지 번지면서 미국 등 선진국 증시도 급락을 면하지 못했다.

최근 주식투자자는 2011년 글로벌 증시 추이가 2013년 글로벌증시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2011년처럼 2013년에도 중국, 브라질, 터키, 이집트 등에서 시작된 유동성 경색이 미국 등 선진국 증시로 번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과 2013년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이한 점이 많다.

이머징 증시 하락 이후
선진국 증시 후행해서 하락함

[그림 1] 2011년 상해종합지수, 브라질 보베스파지수, S&P500, KOSPI 추이



자료: 한국투자증권

■ 2013년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지도부는 2011년과 달라졌다

2011년 경기부진에도
물가상승을 통제하기 위해
대다수의 중앙은행은
긴축통화정책을 실시했다

2011년 상반기에 각국 중앙정부는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을 통제하기 위해
긴축통화정책을 실시했고 각국 국민의 집권세력에 대한 불만은 커져만 갔다. ECB는
기준금리를 1.0%에서 1.25%로 인상하고 중국, 인도, 한국 등 이머징국가는 지급준
비율, 기준금리를 인상을했다.

2011년 긴축통화정책은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율 하락, 불만 표출을
자극했다

각국 국민의 집권세력에 대한 불만은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포르투갈, 스페인, 태국
등 총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었고 이태리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사임했다. 리비아 등 일
부국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내전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집트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인해 2월 무바라크 대통령이 축출되었고 리비아에서는 카다피 정부군과 반정부 시위
대 간의 6개월 내전 끝에 8월 반정부 시위대가 승리하고 10월 카다피는 사망했다.

2011년 미국 국민의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에 대한 지지 하락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
대로 이어졌다. 2010년 7월부터 극우세력 티파티 운동(공화당 분파)이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의 리더십이 약화되었다. 미국 민주당의 리더십 약화로 2011년 부채한도 상향
등 지극히 상식적인 정치행위마저 지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2013년도 2011년과
마찬가지로
집권세력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13년 브라질, 터키, 이집트 등 이머징 국가 국민들은 2011년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브라질 국민들은 기준금리 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터키, 이집트 국민들은 이슬람 원리주의, 반민
주적인 절차, 경기회복 지연으로 쌓인 불만을 반정부 시위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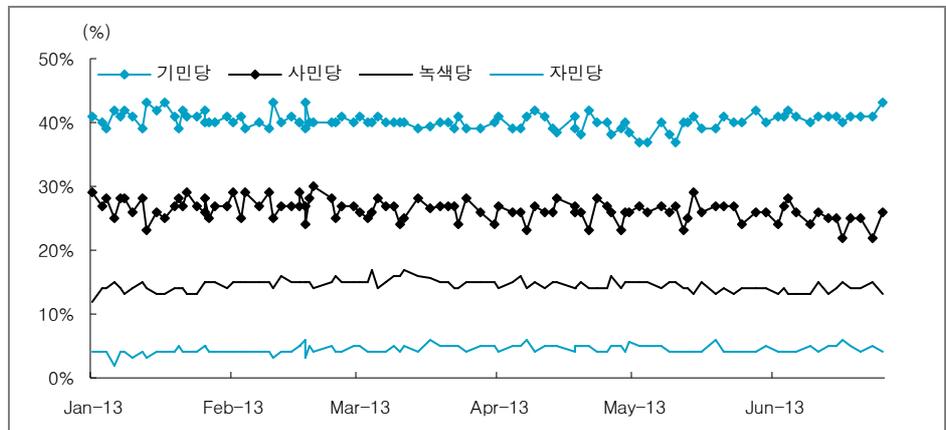
다만 선진국의 리더십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2013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국가의 집권세력의 리더십은 이머징 국가와 달리 안정
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시퀘스터 발동, 출구전략 일정 발표 등을 통해 재정지
출을 줄이고 통화정책 완화폭을 줄이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2011년 부채한도 상
향을 지연시켰던 극우세력 티파티의 영향력이 사라졌다. 일본 아베 총리는 높은 지지
율을 바탕으로 아베노믹스를 지켜나가고 있다.

다만 독일 총선(9월 22일)을 앞두고 유로존 리더십 공백은 우려되고 있다. 독일 총선
에서 기민당, 자민당 연정 지지율 전망치는 46~47%에 그치고 있다. 과반을 확보하
지 못한만큼 독일총선 이전에 메르켈 총리 등은 리더십이 제한적이다.

기민당의 연정파트너인
자민당 지지율이 4~5%에
그치고 있음

[그림 2] 9월 22일 독일 총선 정당별 설문조사 지지율 추이



자료: 한국투자증권

〈표 1〉 2011년 상반기 주요이벤트- 리비아 소요사태, 긴축통화정책

날짜	국가	내용
12/25	중국	중국 인민은행, 기준금리인 대출/예금금리를 5.81%, 2.75%로 25bp 인상, 10/19일에 이어 10년 2번째 인상
12/28	중국	중국 인민은행이 6개월 내 기준금리 2차례 인상(50bp), 지급준비율도 2% 상향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져
01/14	중국	인민은행, 20일부터 은행 등 지준율을 50bp 인상 예정, 대형은행 기준 19%임
01/28	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30년의 통치에 반발하는 시위대로 인해 이집트 소요사태가 격화되고 있어
02/01	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9월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즉각퇴진을 희망해
02/08	중국	기준금리인 1년 대출 금리를 6.06%, 1년 예금 금리를 3%로 각각 25bp 인상해, 물가안정조치의 일환임
02/09	이집트	1/25일 이후 가장 많은 수십만명의 이집트인들이 타흐리르 광장에 모여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해
02/11	한국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75% 유지, 소비자물가 급등(12월 4.1%)에도 2월에는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해
02/17	리비아	리비아(무아마르 알 카다피 42년 집권 중)에서 반정부 세력은 17일을 '분노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여
02/18	중국	인민은행 지급준비율 50bp 인상, 한시 조치를 제외한 지준율 기준으로 대형 은행의 경우 19.5%
02/21	리비아	리비아 소요사태로 리비아 유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브렌트유 선물은 2.5%가 급등한 105.08달러로 마감
02/22	리비아	리비아 사태가 사실상 내전으로 확산, 반정부 시위대가 제2도시 벤가지를 장악, 사망자가 1,000명으로 추정돼
02/24	사우디	리비아 소요사태에 따른 원유 부족분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중, 최소 24시간내 100만 배럴 증산 가능해
02/25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가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등 사태가 점차 악화되는 양상, 유가도 상승
03/02	미국	애플은 스티브 잡스(CEO)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이패드2'를 공개해, 카메라, 속도, 무게 등을 개선
03/07	리비아	리비아 소요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우디에 이어 쿠웨이트, UAE, 나이지리아 등이 증산할 예정임
03/10	한국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를 2.75%에서 3.0%로 인상, 물가는 수요 및 공급 양면에서 상승압력을 받고 있어
03/10	한국	선물옵션만기일인 10일, 외국인투자자는 KOSPI 동시호가에 7,000억원의 현물 매도물량을 내놓았음
03/10	스페인	Moody's, 스페인 국가신용등급을 "Aa1"에서 "Aa2"로 한 단계 하향, 스페인 은행 구조 조정 우려를 표명
03/11	일본	오후 2시26분, 일본 도쿄 도호쿠 해안지방에서 규모 9.0의 강진 발생, 일본 사상 최대의 지진 발생
03/11	EU	유로존17개국정상 회의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실질대출여력을 2,500억유로에서 4,400억유로로 확대
03/14	일본	일본 토픽스선물, 대규모 호가차이로 거래 중단. 7% 폭락, 일본증시 급락에도 한국증시는 안정세가 나타나
03/15	일본	일본 후쿠시마원전 2호기마저 수소폭발, 폭발 직후 측정된 방사선량이 지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03/18	중국	인민은행은 11년 3번째 은행 지준율 50bp 인상, 대형 시중은행의 지준율은 20%로 사상최고 수준
04/05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인 대출예금금리 25bp 인상, 10년 10월이후 4차례 인상, 6개월간 100bp 인상함
04/07	EU	ECB는 기준금리를 1.25%로 25bp 인상, 미국, EU, 영국 등 선진국 중에서 유럽이 최초로 출구전략을 시행
04/07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예산회담 합의 이르면 실패"했다고 발표해, 부채상환선 조정도 늦어지고 있어
04/10	미국	민주, 공화 양당은 예산합의 마감에 임박해 합의에 성공, 3.5조달러 예산안에서 385억불 감축
04/1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급을 일본 정부가 체르노빌사태 수준인 "7"단계로 격상함, 방사성물질 방출 늘어나
04/27	미국	97년 역사상 첫 연준의장 기자회견, 벤 버냉키 연준의장은 출구전략 조기 시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05/03	인도	인도, 기준금리 7.25%로 0.5%p 인상, 인도 중앙은행은 물가 통제를 위해 2011년 3번째 기준금리 인상 단행함
05/03	미국	CME 선물거래 증거금 인상 이후(4/26, 4/29, 5/2) 은이 2일 5.2%, 3일 7.6% 급락하며 상품시장 약세를 이끌어
05/05	포르투갈	EU, IMF가 재정위기에 놓인 포르투갈에 총 780억유로 구제금융을 지원, 2/3은 EU, 1/3은 IMF가 지원할 예정
05/05	미국	에너지 급락에 이어 WTI 유가가 100달러를 하회하는 등 주요 상품 가격이 급락세가 나타났음
05/11	그리스	메르켈 독일 총리, "개혁에 대한 그리스의 확실한 의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추가지원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발언
05/12	중국	인민은행, 시중은행 지급준비율을 21.0%로 0.5%p 인상, 연내 5번째 지급준비율 인상임
05/17	미국	HP CEO의 실적 악화 전망으로 PC시장 회복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반면 인텔은 PC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함
05/18	미국	미 연준, 출구전략을 '先금리인상, 後자산매각'으로 방향 정해, 다만 출구전략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전망
05/20	그리스	Fitch, 그리스 신용등급 "B+"로 3단계 하향 조정, 등급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이라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이 높아
05/21	이태리	S&P, 이태리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 불안감 확산돼
05/23	한국	달러 강세, 외국인 4,093억원 주식 매도에 원달러환율은 15.10원 떨어진 1097.90원에 마감
05/24	미국	세계 최대 채권펀드 핼코의 빌 그로스는 "그리스 국제 만기연장 등 약한 디폴트"를 수용해야한다고 발언함
05/25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월말기준으로 예대율을 75% 이하 유지"에서 "매일기준"으로 6월 1일부터 변경, 규제 강화
06/01	미국	ADP 5월 민간고용 3.8만명 증가, 10년 9월 이후 최저치, 예상치 17.5만명, 4월 17.7만명 크게 하회해
06/07	미국	버냉키 연준의장, "6월 이후 경제성장세가 속도를 내면서 고용이 증가할 것", QE3는 기대와 달리 언급하지 않아
06/09	중국	중국 주요도시 주택값 하락으로 인해 중국 산업, 투자에 악영향이 나타날 전망이라고 WSJ 보도함
06/10	한국	금통위, 기준금리 3.00%에서 3.25%로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함
06/14	중국	인민은행, 지급준비율을 21.5%로 50bp 인상, 6번째 지준율 인상으로 사상최고치 제차 경신

자료: 한국투자증권

■ 2013년 ECB, 일본은행은 돈을 풀 준비가 되어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독일 총선 등 유로존 리더십 약화, 유로존 재정위기 부각은 유로존 등 선진국 증시의 악재이지만 ECB가 본격적으로 대응한다면 충격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ECB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대
-프랑스 등 유로존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음

2013년 ECB는 미 연준과 달리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포르투갈, 그리스 등 일부국가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하는 상황이기때문에 긴축통화정책이 적절한 상황이 아니다. 유로존 경제규모 2위인 프랑스 역시도 5월 소비자물가 0.8%로 물가상승률이 극히 낮은 상황이다.

2011년에는 브라질 등 이머징증시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증시도 인플레이션 위협이 컸으나 2013년에는 이머징증시와 달리 선진국증시는 인플레이션 위협이 작아 통화정책 여력이 분명히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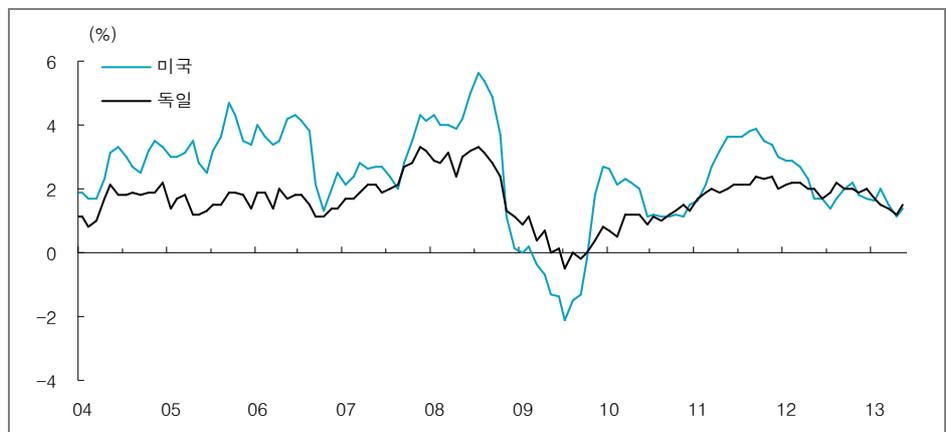
<표 2> 블룸버그 소비자물가 전망치 컨센서스

CPI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F	2014F
전세계	2.8	2.9	4.5	1.1	2.6	3.7	2.8	2.4	2.8
미국	3.2	2.9	3.9	-0.4	1.6	3.2	2.1	1.5	1.9
유로권	2.2	2.1	3.3	0.3	1.6	2.7	2.5	1.5	1.6
독일	1.8	2.3	2.8	0.2	1.2	2.5	2.1	1.6	1.8
포르투갈	3.1	2.4	2.6	-0.9	1.4	3.6	2.8	0.6	1.0
그리스	3.3	3.0	4.2	1.3	4.7	3.1	1.1	-0.3	-0.2
터키	9.6	8.8	10.4	6.3	8.6	6.5	8.9	6.8	6.1
브라질	4.2	3.6	5.7	4.9	5.0	6.6	5.4	6.1	5.7
이집트	4.2	11.0	11.7	16.2	11.7	11.1	8.6	9.2	10.0
중국	1.5	4.8	5.9	-0.7	3.3	5.4	2.7	2.7	3.2
러시아	9.7	9.0	14.1	11.7	6.9	8.5	5.1	6.5	5.6

자료: 한국투자증권

이머징과 달리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물가안정이 유지되는 상황

[그림 3] 미국, 독일 소비자물가 전년비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7월 4일 드라기 ECB 총재는 저금리를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유지할 것이며 기준금리는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기준금리 0.5%가 하한선이 아니라 는 점을 적시하고 포르투갈 등이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 (OMT)을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발언했다.

미 연준과 달리 ECB는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7월 4일 유로화는 약세가 나타나고 독일 국채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행이 양적완화를 통해 일본 국채 금리를 끌어내리고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것처럼 ECB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독일 국채 등 유로존 국채 금리를 끌어내리고 유로화 약세를 이끌고 있다.

<표 3> ECB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 특징

<p>조건부 시행(Conditionality)</p> <p>OMT을 시행하기 위해, EFSF/ESM 프로그램에 따른 엄격하고 효과적인 이행 조건을 필요로한다. 이 프로그램은 EFSF/ESM의 거시경제조정 프로그램이나 위기 확산 예방 프로그램의 형식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별 국가에 맞게 설정하고 감시하는 역할로서 IMF의 개입을 모색할 수 있다. 한편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집행위원회에서 OMT의 개시/지속/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p> <p>지원 범위(Coverage)</p> <p>향후 EFSF/ESM의 거시경제조정 프로그램 및 위기 확산 예방 프로그램 사례에 적용될 수 있고, 현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시장 접근(Market access)이 가능해질 경우 사용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1~3년 만기(잔여만기 포함) 국채에 한하며, OMT의 규모는 무제한이다.</p> <p>채권자 대우(Creditor treatment)</p> <p>유로지역 국가에 의해 발행되고 OMT를 통해 유로 시스템이 매입한 채권에 대해, 민간 채권자 및 여타 채권자간 동등한 대우(Pari passu)를 인정한다.</p> <p>불태화(Sterilization)</p> <p>OMT를 통해 공급된 유동성은 모두 불태화한다.</p> <p>투명성(Transparency)</p> <p>OMT의 보유 총액 및 시장 가치는 주간 단위로 공개한다. OMT를 통해 보유한 평균 듀레이션은 국가별로 구분하며 월간 단위로 공개한다.</p> <p>SMP(Securities Markets Program)</p> <p>OMT 시행을 결정함과 동시에 SMP는 종료한다. SMP를 통해 공급된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흡수할 것이며, 기존의 SMP 포트폴리오에 있는 자산은 만기까지 보유한다.</p>

자료: 한국투자증권 (2012/09/07)

■ 선진국에서 선호하는 "얼리어답터" 상품을 찾아야 한다

2013년 이머징의 경기둔화, 긴축통화정책이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선진국에 미치는 영향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13년 하반기 선진국의 소비수요는 견조하게 증가할 전망이고 선진국 소비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상품의 매출성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30일간 이머징 증시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아래 3종목 주가는 10% 이상 상승했다. 포드 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사 주가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포드 자동차는 미국 소비자가 사랑하는 포드 트럭인 F시리즈 판매호조에 힘입어 매출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포드자동차는 럭셔리 브랜드인 링컨도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 테슬라 자동차의 모델S는 고급차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변동성 확대를 바탕으로 채권, 환율, 금속 등 매매거래가 29%나 증가했다. 주식만 거래하는 거래소가 아닌 다양한 대체상품을 거래하는 선물거래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HP는 PC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클라우드, 빅데이터, 보안 등 엔터프라이즈부문의 실적개선에 힘입어 주가가 턴어라운드하는 양상이다.

[그림 3] 미국 연환산 자동차 판매량 - 05~07년 호황수준인 16~17백만대 수준에 근접함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4] 포드 자동차 주가 - 연중 최고치 경신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ppendix
- 전주 주요일정

날짜	국가	내용
06/26	EU	드라기 ECB 총재, 프랑스국회에서 유로존 경제에는 하방 리스크가 있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연설함
06/26	미국	1분기 GDP성장을 확정치 1.8%, 수정치 2.4% 하회, 소비 증가율,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이 수정치보다 하향 조정됨
06/26	미국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준총재, 연준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 시기도 임박하지 않았다고 발언
06/26	미국	8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45.30달러, 3.6% 하락한 1229.80달러로 마감, 2010년 8월이후 최저치
06/27	한국	한국증시 강세,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형주, KOSDAQ 스마트폰 관련주 등 낙폭과대 인식 확산되며 가파른 반등 이어짐
06/27	한국	미래창조과학부, LTE용 주파수 할당안 4안으로 결정, KT가 공격적으로 베풀하는 경우 1.8GHz 인접대역 확보할 전망
06/27	한국	삼성전자, 78,000원, 6.19% 오른 1,339,000원으로 마감, 외국인인 15거래일만에 순매수로 전환
06/27	한국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상호신뢰와 호혜협력을 강조,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대화재개를 촉구
06/27	미국	월리엄 더틀리 연준총재, 노동시장과 경제성장 지표가 FOMC 전망보다 좋지 않다, 연준의 양적완화는 좀 더 지속될 것
06/27	미국	개인 소비지출 0.3% MoM, 개인소득 0.5% MoM, 예상치 상회, 미결주채매매도 6.7% MoM으로 증가 지속
06/28	한국	셀트리온, 램시마의 유럽 승인 기대로 강세, 서진진회장 등 경영진은 유럽 승인 이후 지분 매각할 계획
06/28	한국	8월 LTE주파수 할당 방안 확정, KT는 주파수 경매 과열에 따른 자금부담 증가 우려하고 있음
06/28	EU	EU정상회담, 은행연합 추진방안 검토, 14년 중반 은행연합 설립할 계획
06/28	키프로스	S&P, 키프로스의 신용등급을 CCC에서 선택적 디폴트(SD) 등급으로 강등, 국제교환절차에 따른 손실 반영
06/28	미국	제레미 스테인 FRB 이사, FRB는 9월 양적완화 축소에 나설 수 있다고 발언, 래커 연준총재는 14년에도 양적완화 축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함
06/28	미국	6월 시카고 PMI 51.6, 5월 58.7 하회, 다만 미시간대 6월 소비심리평가지수 확정치 84.1, 종전치인 82.7 상회
06/28	일본	엔달러 환율 99.26엔으로 마감, 0.9% 상승, 엔달러환율 100엔 상향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
07/01	한국	셀트리온 상한가, 강제성 척추염과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램시마(Remsima) 유럽의약품청 6월 28일 허가받음
07/01	중국	HSBC 중국 6월 제조업 PMI 확정치 48.2, 5월 49.2 하회, 통계국 6월 제조업 PMI 50.1, 5월 50.8 하회, 경기둔화 지속가능성 부각
07/01	북한	북한 대남기구 대변인, 중국정상회담시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관련발언에 대해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심히 모독하는 도발적 망발"이라고 비판
07/01	한국	중소기업 전용 자본시장 코넥스 개장, 상장 21개사 중 20개사의 거래가 성사, 20개 종목 시가총액 4,609억원
07/01	EU	유로존 제조업 PMI 6월 48.8, 16개월내 최고치, 제조업경기 회복에 따른 GDP 성장 재개에 대한 기대 높아짐
07/01	미국	ISM 6월 제조업지수 50.9, 5월 49.0 상회, 다만 고용이 48.7로 5월 50.1 하회하면서 양적완화 지속 기대심리 부각됨
07/02	한국	인터플렉스 강세, 삼성전자와 애플의 신규 단말기 출시로 인터플렉스의 매출 증가 예상
07/02	한국	하이닉스 약세, 엘피다, 마이크론의 합병에 따른 디램시장 경쟁 과열 우려 부각
07/02	한국	1일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 수감, CJ그룹 경영공백을 손경식 회장, 이미경 부회장, 이관훈 지주사 대표 등이 대처할 계획
07/02	한국	오성엘에스티 하한가, 자기자본의 174.7%인 600억원 규모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 보도됨
07/02	한국	MPK 강세, 미스터피자의 중국 상하이 복주로점 매출 호조, 중국내 프랜차이즈 성공가능성 부각
07/02	일본	엔달러환율 100엔 돌파 가능성 부각, 미일 금리차 확대에 따른 일본 엔화 약세 지속되고 있는 양상임
07/02	한국	산업은행, 오성엘에스티, 웅진에너지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 기한이익상실로 유동성 위기 부각됨
07/02	미국	5월 공장주문 2.1% MoM, 예상치 2.0% 상회, 변동성이 큰 운송 부문을 제외한 공장주문도 0.6%로 4월 0.2% 상회
07/02	미국	더틀리 뉴욕 연준 총재, 14년에 미국 경제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시사
07/02	일본	엔달러환율 100엔 돌파, 6월 19일 버냉키 연준의장이 양적완화 축소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꾸준히 약세
07/02	브라질	브라질 상반기 무역수지는 30억 달러 적자, 1995년 상반기 이후 상반기 적자폭 최대치, 원자재 약세 반영
07/02	이집트	WTI 100달러 돌파, 이집트 정정불안으로 유가 상승, 이집트 무르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이집트 국민의 시위 거센 상황
07/02	미국	오바마 대통령 건강 보험 개혁법인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 시행 1년 연기, 조항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절차 개선필요 있음
07/02	EU	S&P, 3월 바클레이즈,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체방크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07/03	중국	통계국 6월 비제조업 PMI 53.9, 5월 54.3 하회, 4개월내 최저치,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악화되는 양상
07/03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사가 보유한 반도체 관련 특허를 공유하기 위해 포괄적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07/03	한국	개성공단 진출 기계/전자업체 철수 의사 피력, 123개 기업 가운데 46개 기업은 정부 지원 부족을 질타함
07/03	한국	2007년 남북정상회담 녹음(육성) 기록물 공개 예정, NLL 포기발언 관련 정쟁 과열되는 양상
07/03	한국	카카오투크의 PC 버전, 출시 10여일만에 이용시간 점유율 2위 달성, 모바일 플랫폼 선점효과 반영됨
07/03	포르투갈	포르투갈 10년물 국제 금리 8% 상향돌파, 비토르 가스파르 재무장관과 파울로 포르타스 외무장관 등 사퇴로 연립정부 붕괴 우려 부각
07/03	미국	ADP 6월 민간고용 증가 18.8만명, 예상치 16만명 상회, 2월 이후 최고치, 고용회복 지속
07/03	이집트	이집트 군부, 무르시 대통령을 축출하고 조기대선을 치를 계획 발표, 무르시 대통령은 가택연금 상태임
07/03	EU	ECB, 기준금리를 0.5%로 동결,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시사, 국제매입프로그램(OMT)도 유지

상해종합 하루 만에 반등, 2000p 회복

- ▶ 원자재와 경기소비재, 에너지, 부동산 등의 업종에 저가매수세 유입, 상해증시 하루 만에 반등
- ▶ 중국 국무원, “기존 재정자금을 경제성장, 구조전환, 민생개선의 중점영역에 활용해야”
- ▶ 홍콩H, 미국 고용지표 호조와 국무원 재정 관련 언급으로 매수심리 회복. 저가메리트 부각

**상해종합 하루 만에 반등.
비철금속, 석탄, 부동산,
가전업종 강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해 다시 2,000p를 상회했다. 오전 1% 가까이 약세를 보였으나 빠르게 강세로 전환했다. 거래대금은 826억위안으로 직전 거래일의 766억 위안에 비해 증가했다. 2분기 경제지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했지만 원자재와 경기소비재, 에너지, 부동산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됐다. 희토류 등 금속주는 저가메리트가 부각되며 크게 올랐고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상향으로 주요 가전업체가 동반 상승했다. 올해 실적 개선 예측과 해외금융기관 매수의견으로 석탄 생산업체도 강세였다. 중국 국무원이 기존 재정자금을 경제성장에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단기시장금리가 10거래일째 하락세를 지속한 것도 우호적인 요인이었다. 업종별로는 비철금속(+4.6%), 석탄(+3.2%), 운송(+2.2%), 화학(+2.1%), 부동산(+2.0%), 자동차/부품(+1.7%), 섬유/의류(+1.4%), 기계(+1.0%), 전력(+0.9%), 가전(+0.7%), 은행(+0.5%)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헬스케어, 전자, 통신 등은 하락했다.

**홍콩H 사흘 만에 강세.
비철금속, 석탄, 음식료
업종 상승**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사흘 만에 강세로 돌아섰다. 직전 거래일에 이집트와 유로존 지역 정국 불안에 대한 우려로 3% 이상 급락했지만 미국 ADP 민간고용 지표가 예상을 크게 웃돌며 반발매수세가 유입됐다. 또한 중국 국무원이 기존 재정자금을 경제성장에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해 매수심리에 기여했고 Citi그룹이 중국 본토와 홍콩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확대로 제시하면서 저가메리트도 부각됐다. 다만 중국의 2분기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 속에 관망심리가 형성되며 거래량은 크게 위축됐다. 업종별로는 최근 조정폭이 컸던 비철금속, 석탄, 음식료, 증권, 은행, 철도 등이 강세를 나타냈고 특히 석탄주는 해외금융기관의 매수의견 유지로 5% 가까이 급등했다. 반면 전력, 보험, 자동차, 제약 등은 약세였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7/4(목)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006.10	0.59	2.88	1.36	-11.59
홍콩 H	9,024.01	1.39	-1.53	-3.09	-21.09
인도 SENSEX	19,332.20	0.81	2.42	-0.33	-0.49
러시아 RTS	1,266.74	0.19	0.31	-0.68	-17.04
브라질 보베스파	45,044.03	-0.41	-4.51	-5.08	-26.10
베트남 VN	487.22	-0.03	0.88	1.27	17.76
MSCI 이머징마켓	912.18	-2.14	-0.79	-2.99	-13.55

주: 4일 오후 5시 20분 기준

시장 동향과 특징주

남북간 긴장감 완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삼성전자 실적 기대감에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

- 미국증시는 이집트와 포르투갈의 정국 불안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 마감. 1,830P선을 회복하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의 매수세가 확대되며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 1,840P선 진입을 앞두고 마감.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인 사흘 만에 매수세를 보이며 525P로 마감.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며 삼성전자가 131만원을 회복했으며, 스마트폰부품 관련 종목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며 주가 상승을 견인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소식에 파미셀이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파미셀과 간부전치료제 개발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JW중외제약도 동반 강세를 보임. 동양이 섬유사업부문 매각 대상자를 변경했다는 소식 및 오는 17일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에 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냈으며, 북한이 장마철을 대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을 위한 방북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현대상선을 비롯한 대북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또한, 정부가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9,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소식이 오로라를 비롯한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임. 한편,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셀트리온이 이를 연속 하락했으며, 렌즈 출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감에 세코닉스가 급락세를 보임

종목/이슈	내용
파미셀(005690) ▶4,840(상한가)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 효과 입증 소식에 상한가 - 지난 2009년 10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승인을 받고 알코올성 간경변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제의 임상실험을 진행한 결과,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간학회 공식 학술지인 '리버 인터내셔널'에 게재됐으며,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의 미국 임상 진입을 위한 임상시험승인 사전미팅(Pre-IND)을 앞두고 있음
동양그룹주	섬유사업부문 매각 대상자 변경 및 회사채 발행 소식에 강세 - 동양이 자사 섬유사업부문 매각 대상자를 변경했다는 소식과 함께 올 들어 네번째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에 강세 - 동양시멘트(038500, 상한가), 동양(001520, +9.09%), 동양네트웍스(030790, +4.49%) 등 강세
대북 관련주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했다는 소식에 강세 -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인원의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강세 - 현대상선(011200), 로만손(026040), 에머슨퍼시픽(025980), 재영솔루텍(049630), 제룡전기(033100), 제룡산업(147830, 이상 상한가), 신원(009270, +8.40%), 좋은사람들(033340, +6.91%) 등 강세

52주 신고가

종목	내용
골프존(121440) ▶67,200(+7.52%)	- 1주당 2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신고가 경신. 신규 발행규모는 2,546만여주로 신주배정일은 다음달 12일임
LG유플러스(032640) ▶12,650(+3.27%)	-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아울러, 6월 번호이동자수가 전월 대비 감소한 가운데 동사는 3사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가입자수 증가세를 보이며 5개월 연속 순증세를 이어감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비아트론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비아트론 (141000)	15,800 (-5.1)	16,650 (7/02)	- 열처리 공정 관련 장비제조 업체로 경쟁사 대비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SMD, LGD, BOE 등 다수의 글로벌 패널 업체를 고객사로 보유 - 인라인형과 배치형 열처리 장비를 모두 제조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관련 투자 증가에 따른 수주 및 실적 모멘텀 지속 전망
신세계푸드 (031440)	90,300 (-7.1)	97,200 (6/20)	- 규제 리스크 등으로 단기 업황은 부진하나 산업의 성장성, 생산설비 확충, captive market 확보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올해 말로 예정된 음성 공장 가동으로 이마트 향 HMR(Home Meal Replacement) 및 PL상품의 매출 확대에 따른 성장성과 함께 제품믹스 개선 및 규모의 경제에 따른 수익성 개선 가능성 내재
현대차 (005380)	214,000 (+5.2)	203,500 (6/13)	- 가동률 상승과 해외공장 볼륨 증대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증설 및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 유호 - 엔터 및 글로벌 경쟁격화, 노조 문제 등에 따른 디스카운트 요인들은 주가에 선반영된 상태로 밸류에이션 정상화 가능성 상존
시그네텍스 (033170)	2,805 (-15.8)	3,330 (5/22)	- 반도체 수급 개선 및 모바일 수요 확대에 따른 패키지 외주 주문량 증가 추세 - 해외 고객사 비중 확대, 가동률 회복 등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 예상 - 고부가가치 High-end 제품 비중 확대, 시스템 LSI투자 확대, 고객 다변화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 동력 내재
한국타이어 (161390)	52,300 (+9.2)	47,900 (5/02)	- 투입원가 하락과 브랜드 입지 및 Product mix 개선 등으로 1분기 수익성 개선 - 미국 내 경쟁강도가 완화되는 가운데 하반기 중국 시장 회복 본격화 예상 - 글로벌 점유율 개선과 견고한 이익 안정성을 감안할 때 글로벌 Peer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다음 (035720)	83,400 (-3.9)	86,800 (4/11)	- 모바일 서비스 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퍼블리싱 게임 확대로 게임 매출 증가 예상 - RPS(Revenue Per Search; 검색쿼리당 매출) 상승에 힘입어 검색광고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기저 효과, 영업력 강화 등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업종 내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현대차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비아트론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NHN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3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NHN (035420)	290,500 (-0.7)	292,500 (6/13)	2,980	842	638	14,661	19.8
- ‘라인’의 글로벌 가입자 기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 광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 PC 온라인 게임 매출 개선, 자체 개발 모바일 게임들의 흥행 성공, 모바일 검색광고의 성장세 등을 주목할 필요							
삼성전자 (005930)	1,317,000 (-13.4)	1,520,000 (5/02)	235,178	42,197	31,496	202,968	6.5
-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계절적 수요 약세에도 불구하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현 - 갤럭시S4 출시로 2분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를 감안할 때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해소 예상							
대교우B (019685)	4,120 (+2.5)	4,020 (4/11)	789	62	63	673	6.1
- 유아 및 초등학습지 시장 1위(점유율 35%) 업체로 러닝센터에 대한 투자완료로 2013년 이익 개선 예상 - 학습지 단가 인상 가능성과 자회사를 통한 다양한 성장동력 모색 - 풍부한 자산가치와 배당 매력도를 감안할 때 안정적인 가치주로서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2012년 DPS기준 우선주의 예상 배당수익률 5%를 상회							
유한양행 (000100)	200,000 (+7.5)	186,000 (3/21)	918	64	130	12,330	16.2
- 신제품 효과로 1분기 실적 호조가 전망되며, 하반기에는 API(원료의약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유한화학(100% 지분 소유)의 증설효과가 예상됨 - 유한킴벌리의 프리미엄 기저귀의 중국 수출 확대와 바이오 회사 지분투자 및 외부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한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 유효 - 장기 성장성, 실적 모멘텀, 업종 내 상대적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LG전자 (066570)	71,000 (-8.5)	77,600 (2/26)	53,357	1,562	1,116	6,197	11.5
- 2012년 휴대폰 부문의 흑자 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 및 ASP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 가전, TV, 에어컨 부분의 견고한 경쟁력을 감안할 때 글로벌 Peer그룹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대덕GDS (004130)	19,000 (+3.8)	18,300 (1/21)	578	58	49	2,156	8.8
- 모바일기기에 고화소 카메라 모듈 탑재 확대는 주력제품인 Rigid Flexible (R/F) FPCB 판매 호조를 견인할 전망 - FPCB와 모바일 메인보드용 HDI 매출비중이 2012년 55%에서 2013년 63%까지 확대되며, 가전에 탑재되는 범용 PCB 제품 비중이 축소되는 대신, 직하형 LED TV에 탑재되는 고부가가치 LED BAR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사업부의 제품 mix 개선에 따른 이익률 개선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전자, 삼성전자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건설: 2Q Preview: 실적부진 지속, 밸류에이션 위주의 제한적 접근 필요

■ 주요사 2Q 영업이익 전년대비 45.3% 감소 전망, 실적 부진 지속

주요 건설사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5.3%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GS건설의 적자 지속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실적 부진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럼에도 문제 현상이 일시에 드러나며 실적 추정치가 대거 하향됐던 지난 4월 대비 충격은 작을 전망이다. 양사를 제외한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8.7% 증가가 예상되며 여기에는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23% 증가하는 현대건설의 역할이 크다. 작년 수주 부진 탓에 2분기 합산 매출 증가율은 4.1%YoY에 그칠 전망이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의 key는 외형보다 수익성 정상화일 것이다.

■ 현대건설만 컨센서스 부합,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소폭 하회, 나머지는 실적 의미 없어

업체별로 실적 차이가 극명하다. 현대건설만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소폭 하회할 전망이다[표 1 참조]. 나머지는 모두 큰 폭 컨센서스를 하회하거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실적 의미가 없다. GS건설은 1분기 5,444원의 영업손실에 이어 2분기에도 1,830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되는데 이는 4월에 수정 발표한 가이던스 수준이다. 그룹 감사가 마무리된 삼성엔지니어링은 실적 예측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상태다. 양사 모두 문제 현상이 완공되기 전에는 cost overrun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주가 바닥은 가격보다 시기의 문제다. 즉, 문제 현상이 완공되기 시작할 4분기부터 이익 추정이 의미가 있다.

■ 해외수주, 대림산업과 삼성물산 약진

해외수주 역시 업체별 편차가 크며 원가관리가 잘 된 업체일수록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계약 대기 중인 프로젝트까지 감안한 해외수주 달성률은 삼성물산이 94%, 현대건설이 59%, 대림산업이 54%로 추정돼 가장 양호하다. 올해 수주는 내년 하반기와 2015년 외형을 결정짓기 때문에 현재 수주 상황이 중장기 성장성을 설명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존 전통시장인 중동 비중 하락,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는 발전플랜트 비중 확대 등 과열 경쟁을 피해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이다. 대림산업은 ASEAN IPP 시장을, 삼성물산은 호주나 영국 등 입찰 시스템이 투명한 선진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 Top picks 대림산업, 삼성물산 유지. 업황 침체기에는 밸류에이션 위주로 접근해야

침체기에는 외형 성장성보다 원가율이나 밸류에이션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따라서 top picks로 대림산업과 삼성물산을, 차선호주로 현대건설을 유지한다. 나머지 업체는 추세적인 실적 개선 시그널이 확인된 뒤 신중히 접근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대림산업의 12개월 forward PER은 6배로 안정된 원가율 트렌드 고려시 지나친 저평가다. 삼성물산 역시 PBR 0.6배 미만으로 역사적 하단까지 내려와, 충분히 긍정적 접근이 가능한 가격이다. 업황이 불안할 때는 업체간 차별화가 무의미해 보일 수 있지만 1분기 실적 시즌에도 그랬듯, 원가관리가 되고 자신만의 시장을 발굴하고 있는 회사의 주가는 결국 제자리를 찾기 마련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7월 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6/27(목)	06/28(금)	07/01(월)	07/02(화)	07/03(수)	07/04(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34.70	1,863.32	1,855.73	1,855.02	1,824.66	1,839.14	
	등락폭	51.25	28.62	-7.59	-0.71	-30.36	14.48	
	등락종목	상승(상한)	746(3)	632(4)	467(4)	431(3)	196(3)	482(3)
		하락(하한)	116(3)	198(1)	355(1)	380(1)	634(1)	316(0)
	ADR	66.45	72.76	75.40	78.87	77.08	83.32	
	이격도	10 일	99.54	101.23	100.97	101.18	99.87	100.73
		20 일	96.71	98.58	98.55	98.87	97.68	98.77
	투자심리	40	40	40	30	30	40	
	거래량 (백만 주)	286	251	221	483	406	309	
	거래대금 (십억 원)	4,189	4,465	3,038	3,896	3,774	3,093	
코스닥	코스닥지수	512.25	519.06	527.81	526.92	521.31	525.22	
	등락폭	19.18	6.81	8.75	-0.89	-5.61	3.91	
	등락종목	상승(상한)	746(16)	632(7)	467(7)	431(5)	196(7)	582(10)
		하락(하한)	116(1)	198(0)	355(3)	380(1)	634(2)	308(1)
	ADR	63.53	69.01	73.82	74.86	74.20	81.08	
	이격도	10 일	99.13	100.78	102.41	102.38	101.49	102.26
		20 일	95.53	97.36	99.47	99.70	99.02	99.99
	투자심리	40	40	40	30	30	40	
	거래량 (백만 주)	404	374	323	345	383	378	
	거래대금 (십억 원)	1,652	1,579	1,291	1,777	1,591	1,633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기 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유가증권	매수	1,553.8	724.5	806.4	194.2	94.7	243.6	72.5	19.2	182.267	32.8
	매도	1,552.3	809.3	721.1	168.5	82.4	240.4	36.6	27.9	165.4	34.8
	순매수	1.5	-84.7	85.2	25.7	12.3	3.2	35.9	-8.7	16.9	-2.0
	7월 누계	282.6	-316.6	5.7	35.8	-108.2	-25.3	-23.1	-8.7	135.2	28.3
	13년 누계	2,386.6	-10,303.0	8,446.4	1,877.5	889.7	-95.1	254.4	-59.9	5,579.8	-529.9
코스닥	매수	1,487.7	87.3	59.0	10.2	12.6	17.0	2.5	1.4	15.4	17.8
	매도	1,492.7	63.3	85.8	13.5	11.9	21.8	4.4	1.5	32.8	10.0
	순매수	-4.9	23.9	-26.8	-3.3	0.8	-4.8	-1.9	-0.1	-17.4	7.8
	7월 누계	-10.6	39.8	-33.0	-7.4	19.0	-19.5	-5.9	5.4	-24.5	3.9
	13년 누계	-1,021.5	833.6	721.6	-57.1	86.1	399.1	-96.0	-49.7	449.2	-533.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13,930	전기,전자 -45,785
서비스업	9,901	건설업 -4,579
운수장비	8,774	운수창고 -2,498
LG화학	6,761	SK하이닉스 -15,736
SK텔레콤	5,766	삼성전기 -14,886
삼성SDI	5,203	삼성전자 -14,715
SK이노베이션	4,278	삼성화재 -4,969
현대차	4,122	LG전자 -4,260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11,449	운수장비 -12,660
서비스업	8,796	철강및금속 -8,789
유통업	5,660	전기,전자 -3,823
SK이노베이션	5,856	현대모비스 -11,426
삼성전자	4,974	현대중공업 -6,455
삼성물산	4,192	삼성전기 -5,959
한국전력	4,102	POSCO -5,103
SK텔레콤	3,706	엔씨소프트 -2,167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2,354	운수창고 -6,881
철강및금속	1,369	전기,전자 -2,650
운수장비	1,165	화학 -1,543
SK이노베이션	2,666	현대상선 -6,858
TIGER 200	1,450	삼성전자 -2,533
POSCO	1,002	삼성화재 -1,124
현대차	740	KB금융 -753
현대중공업	714	현대건설 -753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9,931	전기,전자 -11,661
전기가스업	7,505	철강및금속 -2,843
의약품	3,876	운수장비 -2,190
한국전력	6,613	SK하이닉스 -6,504
SK이노베이션	5,504	코웨이 -5,045
하나금융지주	2,884	KODEX 200 -4,968
삼성SDI	2,493	LG디스플레이 -4,458
종근당	2,223	삼성전자 -2,422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28,495	전기,전자 -26,473
서비스업	23,437	운수창고 -10,716
전기가스업	12,891	철강및금속 -4,775
KODEX 레버리지	20,653	삼성전기 -20,809
SK이노베이션	18,022	SK하이닉스 -20,106
삼성전자	16,677	현대모비스 -9,697
KODEX 200	13,214	LG이노텍 -7,720
현대차	12,863	삼성화재 -6,728
삼성SDI	12,030	현대상선 -6,156
한국전력	11,554	LG전자 -6,065
LG화학	10,003	코웨이 -4,171
SK텔레콤	9,702	LG유플러스 -4,026
NHN	6,404	현대제철 -4,002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보험	8,233	전기,전자 -48,472
운수창고	5,673	금융업 -24,899
통신업	4,855	운수장비 -9,744
삼성화재	16,382	삼성전자 -28,154
LG유플러스	10,869	현대차 -19,738
현대모비스	10,834	하나금융지주 -12,328
기아차	10,570	KODEX 200 -11,833
락앤락	6,544	삼성전기 -10,011
롯데쇼핑	4,901	삼성SDI -9,930
LG	4,726	SK이노베이션 -8,081
KT&G	4,276	삼성생명 -6,826
코웨이	4,177	현대중공업 -6,800
현대상선	3,169	LG생활건강 -6,07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서비스	1,320	소프트웨어 -2,863
계약	1,153	IT부품 -1,670
음식료,담배	1,009	디지털컨텐츠 -1,195
SK브로드밴드	1,316	골프존 -3,492
매일유업	1,201	위메이드 -1,003
이라이컴	870	KH바텍 -846
세코닉스	804	옵니시스템 -649
하나투어	700	파라다이스 -549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소프트웨어	1,138	IT부품 -4,498
통신서비스	799	반도체 -3,005
인터넷	708	의료,정밀기기 -2,948
인프라웨어	1,426	미디어플렉스 -2,853
액토즈소프트	1,051	세코닉스 -2,535
SK브로드밴드	799	서울반도체 -2,072
KG모빌리언스	752	게임빌 -1,705
에스엠	645	파트론 -1,492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270	반도체 -271
사업지원	236	기계,장비 -175
디지털컨텐츠	158	오락,문화 -117
서원인텍	227	미디어플렉스 -231
태광	134	이녹스 -196
모두투어	132	서울반도체 -187
휴온스	117	제이브이엠 -148
파라다이스	114	와이솔 -119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사업지원	1,364	소프트웨어 -1,794
오락,문화	908	반도체 -777
출판,매체복제	689	디지털컨텐츠 -650
파라다이스	1,207	게임빌 -2,478
하나투어	1,199	골프존 -2,323
파트론	861	CJ오쇼핑 -503
조이맥스	847	원익IPS -497
에스엠	691	로만손 -370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서비스	2,316	IT부품 -8,933
사업지원	2,081	반도체 -7,300
출판,매체복제	1,520	소프트웨어 -5,412
SK브로드밴드	2,311	골프존 -9,811
에스엠	1,745	게임빌 -3,417
인프라웨어	1,477	서울반도체 -3,340
하나투어	1,472	미디어플렉스 -2,888
액토즈소프트	1,342	옵트론텍 -1,716
매일유업	1,288	파트론 -1,561
KG모빌리언스	1,009	원익IPS -1,350
이라이컴	971	아모텍 -1,298
파라다이스	866	세코닉스 -1,254
태광	813	솔브레인 -1,250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5,448	통신장비 -552
디지털컨텐츠	4,852	소프트웨어 -286
반도체	4,095	운송장비,부품 -284
게임빌	4,887	골프존 -1,634
인터플렉스	3,250	파트론 -1,089
CJ오쇼핑	1,803	인프라웨어 -848
서울반도체	1,635	윈스테크넷 -805
이지바이오	1,467	시그네틱스 -792
솔브레인	1,075	메디톡스 -791
다음	1,057	크루셀텍 -788
세코닉스	961	우전앤한단 -603
셀트리온	899	씨젠 -596
KH바텍	893	위메이드 -55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NHN	25 일	대덕전자	11 일
삼성생명	23 일	삼영전자	10 일
태광산업	20 일	아세아시멘트	7 일
신세계	17 일	웅진코웨이	7 일
삼성SDI	17 일	한국셀석유	6 일
KPX케미칼	17 일	현대글로벌비스	6 일
유니드	16 일	조선내화	5 일
한진중공업	15 일	부광약품	5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25 일	성광벤드	7 일
메가스터디	21 일	케이디씨	6 일
매일유업	10 일	동양시멘트	6 일
SK브로드밴드	8 일	우주일렉트로	6 일
SBS콘텐츠허브	8 일	테크노세미켐	5 일
포스코켄텍	7 일	아트라스BX	4 일
에스엠	6 일	다음	4 일
이엘케이	6 일	서울반도체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LG화학	89,749	현대차	159,156
KODEX 레버리지	78,183	SK하이닉스	108,404
삼성SDI	59,450	KODEX 200	61,287
삼성생명	43,212	기아차	58,148
현대모비스	36,734	현대차2우B	52,410
한국전력	29,631	삼성중공업	26,098
롯데케미칼	27,091	LG유플러스	24,354
NHN	26,310	현대위아	16,039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스엠	9,130	셀트리온	27,791
셀트리온	7,671	서울반도체	10,250
SK브로드밴드	7,227	성광벤드	9,476
휴맥스	4,381	게임빌	7,045
성우하이텍	3,882	CJ오쇼핑	4,345
태광	3,832	인프라웨어	3,986
위메이드	3,505	인터플렉스	3,183
하나투어	3,319	GS홈쇼핑	2,940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전기가공업	12,891	외	국 인
통신업	8,467	합	계
보험	3,927	12,160	
한국전력	11,554	616	12,170
기아차	1,421	10,570	11,991
락앤락	1,689	6,544	8,233
유한양행	4,026	1,746	5,772
롯데케미칼	5,118	547	5,665
KT&G	294	4,276	4,570
BS금융지주	1,292	728	2,020
우리금융	1,653	317	1,970
금호석유	1,411	549	1,959
한전KPS	1,050	903	1,953

KOSDAQ			
종	목	기	관
사업지원	2,081	외	국 인
통신서비스	2,316	295	2,611
음식료, 담배	616	1,561	2,177
인터플렉스	174	3,250	3,424
SK브로드밴드	2,311	188	2,499
KG모빌리언스	1,009	754	1,762
파라다이스	866	890	1,756
하나투어	1,472	133	1,605
엑토즈소프트	1,342	80	1,422
매일유업	1,288	51	1,339
모두투어	676	612	1,288
다음	103	1,057	1,161
코나아이	536	492	1,028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대한항공	22 일	신세계	25 일
KINDEX 성장대형F15	19 일	롯데칠성	17 일
현대증권	18 일	KT	14 일
한일시멘트	16 일	종근당	11 일
부광약품	13 일	울촌화학	11 일
TIGER 그린	12 일	LG화학	11 일
한진중공업홀딩스	11 일	두산	8 일
풍산	11 일	CJ	7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원익IPS	6 일	이트레이드증권	37 일
심텍	5 일	메가스터디	19 일
네패스	4 일	포스코캠텍	8 일
한국토지신탁	4 일	평화정공	7 일
STS반도체	4 일	시그네틱스	6 일
서울반도체	4 일	태웅	6 일
KH바텍	4 일	네오위즈게임즈	6 일
에이블씨앤씨	4 일	서부T&D	5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SK하이닉스	-186,617	LG화학	-49,467
현대차	-68,836	KB금융	-46,143
삼성전자	-66,903	삼성SDI	-18,474
삼성전기	-49,684	삼성전기	-17,894
KODEX 200	-47,139	하나금융지주	-16,367
LG전자	-43,616	신세계	-15,105
KODEX 인버스	-40,886	삼성엔지니어링	-14,526
현대차2우B	-40,091	KT	-13,022

KOSDAQ			
기	관	외	국 인
게임빌	-9,998	에스엠	-3,836
원익IPS	-6,119	태광	-2,700
성광벤드	-5,960	성우하이텍	-2,433
KH바텍	-5,253	평화정공	-2,039
네패스	-5,015	시그네틱스	-2,011
서울반도체	-4,209	에스에프에이	-1,956
루멘스	-3,230	리홈쿠첸	-1,779
아모텍	-2,944	디스플레이텍	-1,680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26,473	-48,472	-74,945
건설업	-4,388	-3,377	-7,766
철강및금속	-4,775	-2,948	-7,723
삼성전기	-20,809	-10,011	-30,821
현대중공업	-1,113	-6,800	-7,913
LG전자	-6,065	-744	-6,809
현대건설	-1,506	-3,871	-5,377
현대제철	-4,002	-841	-4,843
한미약품	-1,927	-1,060	-2,987
LG디스플레이	-2,355	-387	-2,742
GS건설	-970	-1,650	-2,620
녹십자	-1,936	-278	-2,213
하이트진로	-821	-1,320	-2,141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소프트웨어	-5,412	-286	-5,698
금융서비스	-238	-62	-299
연구,개발	-144	-7	-151
골프존	-9,811	-1,634	-11,445
미디어플렉스	-2,888	-104	-2,992
파트론	-1,561	-1,089	-2,650
아모텍	-1,298	-231	-1,529
크루셜텍	-550	-788	-1,337
CJ E&M	-855	-435	-1,290
로만손	-1,094	-108	-1,203
시그네틱스	-323	-792	-1,115
씨티씨바이오	-730	-124	-854
위메이드	-203	-558	-761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28	36,781
LG전자	179	12,755
SK하이닉스	296	8,711
현대중공업	41	7,407
엔씨소프트	40	6,856
삼성엔지니어링	84	6,192
LG이노텍	70	5,918
OCI	41	5,524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50	2,640
위메이드	21	1,132
컴투스	28	951
리홈쿠첸	191	896
게임빌	11	843
인터파크	69	579
에스엠	17	563
인터플렉스	14	56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584	4,663,120
POSCO	8,042	2,364,402
LG전자	20,477	1,443,659
현대차	6,360	1,367,502
SK하이닉스	40,657	1,168,876
OCI	6,288	836,272
NHN	2,547	742,413
기아차	11,797	686,607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2,333	641,324
파라다이스	6,362	147,599
파트론	5,800	108,173
서울반도체	2,371	79,902
에스엠	2,296	76,571
게임빌	948	69,224
덕산하이메탈	2,383	60,181
오스템임플란트	2,041	59,18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철강및금속	1,166	서비스업	-1,974
전기가스업	1,018	전기,전자	-1,868
종이,목재	548	운수장비	-1,854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3,819	한화케미칼	-3,395
한국가스공사	1,387	LG디스플레이	-2,074
한화	729	STX팬오션	-1,383
현대산업	674	한화생명	-1,107
대우조선해양	560	기아차	-920
LG이노텍	502	LG전자	-828
한진해운	501	LG유플러스	-750
삼성증권	494	하나금융지주	-711
POSCO	469	삼성중공업	-654
광명전기	434	두산인프라코어	-638

KOSDAQ			
순 증		순 감	
제약	2,121	전문기술	-388
오락,문화	739	통신서비스	-365
통신장비	510	음식료,담배	-288
셀트리온	2,130	차바이오앤	-1,119
파라다이스	592	팜스토리	-750
파트론	370	SK브로드밴드	-374
토비스	334	씨티씨바이오	-258
코엔텍	283	인터파크	-213
이지바이오	275	루멘스	-212
웨이브일렉트로	250	에스텍파마	-206
위닉스	247	CJ E&M	-181
하나투어	220	에스엠	-153
티케이케미칼	218	대화제약	-12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6/28(금)	07/01(월)	07/02(화)	07/03(수)	07/04(목)
외국인	-10,303.0	-316.6	676.0	490.8	-44.4	46.5	-233.9	-84.7
기관계	8,446.4	5.7	-244.3	-124.9	-65.7	19.6	-33.5	85.2
(투신)	-95.1	-25.3	-442.3	35.3	-20.2	-2.7	-5.6	3.2
(연기금)	4,547.2	146.9	-43.5	46.1	57.2	5.4	65.6	18.7
(은행)	-59.9	-8.7	-1.4	-21.9	1.6	3.4	-4.9	-8.7
(보험)	889.7	-108.2	28.0	-70.0	-59.0	-29.2	-32.3	12.3
개인	2,386.6	282.6	-377.4	-358.5	71.3	-60.7	270.6	1.5
기타	-529.9	28.3	-54.3	-7.4	38.8	-5.4	-3.2	-2.0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06/27(목)	06/28(금)	07/01(월)	07/02(화)	07/03(수)
KOSPI	2,033.3	1,825.7	1,997.1	1,834.7	1,863.3	1,855.7	1,855.0	1,824.7
고객예탁금	15,249.8	17,680.2	18,014.3	19,000.2	18,262.6	19,892.0	18,436.2	17,791.9
(증감액)	1,996.5	3,611.7	334.1	581.6	-737.6	1,629.4	-1,455.8	-644.3
(회전율)	50.3	34.2	26.7	30.7	33.1	21.8	30.8	30.2
실질예탁금 증감	-3,502.6	3,775.5	-13,274.3	580.9	-671.7	1,848.2	-1,737.3	-604.5
신용잔고	59,709.0	44,763.0	39,124.0	4,536.2	4,658.3	4,471.7	4,427.3	4,455.0
미수금	1,778.0	1,877.0	1,241.0	190.7	191.8	100.0	81.1	83.6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6/27(목)	06/28(금)	07/01(월)	07/02(화)	07/03(수)
전체 주식형	91,810	-1,033	174	116	435	56	61	58
(ex. ETF)		-2,541	130	48	17	66	61	3
국내 주식형	68,533	916	182	155	440	66	58	58
(ex. ETF)		-602	137	83	23	77	58	2
해외 주식형	23,277	-1,948	-7	-38	-6	-11	3	0
(ex. ETF)		-1,939	-7	-35	-6	-11	3	0
주식 혼합형	9,551	-369	-10	-36	76	-4	-2	-4
채권 혼합형	23,801	5,067	44	2	289	-91	138	-4
채권형	53,879	1,504	-143	-404	-209	-12	-3	-128
MMF	78,361	14,399	9,576	-6	-1,759	1,578	6,228	1,77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6/28(금)	07/01(월)	07/02(화)	07/03(수)	07/04(목)
한 국	-9,164	-271	995	430	-39	41	-205	-68
대 만	-1,102	-666	837	212	-140	-230	-161	-135
인 도	13,545	204	1,291	-	205	-1	-	-
인도네시아	-208	-155	1,088	97	-30	-37	-88	-
태국	-2,615	-89	1,146	167	-	20	-109	-
남아공	2,889	440	1,067	501	182	166	92	-
필리핀	1,540	44	126	82	30	15	-1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2년	06/27(목)	06/28(금)	07/01(월)	07/02(화)	07/03(수)	07/04(목)
회사채 (AA-)	3.29	3.37	3.31	3.44	3.39	3.40	3.39
회사채 (BBB-)	8.80	9.01	8.94	9.06	9.01	9.02	9.01
국고채 (3년)	2.82	2.97	2.88	2.99	2.94	2.95	2.93
국고채 (5년)	2.97	3.21	3.14	3.25	3.18	3.19	3.19
국고채 (10년)	3.16	3.44	3.40	3.51	3.42	3.45	3.46
미 국채 (10년)	1.76	2.48	2.46	2.48	2.48	2.51	-
일 국채 (10년)	0.80	0.84	0.85	0.89	0.90	0.88	-
원/달러	1,070.60	1,149.70	1,142.00	1,132.40	1,134.00	1,143.70	1,139.40
원/엔	1,243.73	1,173.28	1,152.25	1,135.24	1,130.27	1,147.60	1,142.94
엔/달러	86.08	97.99	99.11	99.75	100.33	99.66	99.69
달러/유로	1.32	1.30	1.30	1.30	1.30	1.30	1.30
DDR3 1Gb (1333MHz)	0.67	1.23	1.26	1.27	1.27	1.28	-
DDR3 2Gb (1333MHz)	1.07	1.92	1.91	1.92	1.92	1.92	-
NAND Flash 16Gb (MLC)	1.89	2.98	2.98	2.98	2.98	2.98	-
CRB 지수	295.01	277.35	275.62	277.90	279.69	281.79	-
LME 지수	3,454.5	2,940.1	2,940.5	3,029.5	3,018.6	3,021.4	-
BDI	699	1,151	1,171	1,179	1,170	1,133	-
유가 (WTI, 달러/배럴)	91.82	97.05	96.56	97.99	99.60	101.24	-
금 (달러/온스)	1,663.40	1,211.60	1,223.70	1,255.70	1,243.40	1,251.9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KOSPI200	최근월물 1309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이론	마감	평균		증감	
6월 28일	242.27	242.00	1.36	-0.27	1.03	213,705	111,602	1,388
7월 1일	241.05	242.30	1.30	1.25	0.36	155,949	110,175	-1,427
7월 2일	240.80	242.25	1.28	1.45	0.90	187,718	110,650	475
7월 3일	236.63	237.45	1.24	0.82	0.43	230,851	113,538	2,888
7월 4일	238.56	239.30	1.25	0.74	1.00	165,662	112,744	-794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6월 28일	740	1,390	-1,614	-282	-1,297	73	-114	8
7월 1일	412	-957	462	557	-139	59	11	-28
7월 2일	324	-273	315	1,873	-1,671	96	-72	89
7월 3일	-181	918	-183	451	-889	116	123	24
7월 4일	2,281	-826	-1,514	-533	-485	-157	-70	-274
누적포지션	-4,808	1,449	3,809	-1,478	6,686	74	-1,171	-299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6월 28일	1,198	1,615	417	1,097	1,583	486	101	32	-69	5,018	8,673
7월 1일	856	741	-115	722	725	3	134	16	-118	5,027	8,561
7월 2일	768	816	48	722	743	20	45	73	28	5,026	8,586
7월 3일	992	718	-275	913	686	-228	79	32	-47	5,022	8,530
7월 4일	466	571	105	454	560	105	12	1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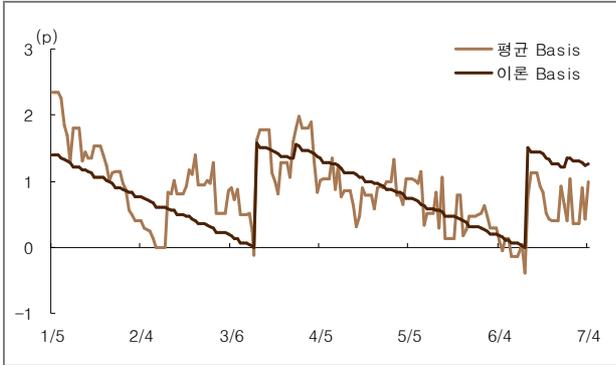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16.83	11,597	116,302	0.05	250.00	11.55	213	-75	22.66
	16.15	5,415	207,518	0.12	247.50	9.10	187	-59	19.75
	15.94	7,547	330,748	0.31	245.00	6.70	758	-217	17.02
	16.09	2,403	384,430	0.75	242.50	4.70	7,132	-119	17.36
	16.38	2,720	258,339	1.57	240.00	3.05	20,362	439	17.64
	16.72	-478	153,704	2.84	237.50	1.80	179,977	243	17.82
	16.70	438	15,208	4.50	235.00	0.98	205,586	654	18.20
	16.29	71	4,328	6.50	232.50	0.51	205,889	-535	18.88
	12.46	-12	333	8.70	230.00	0.28	239,652	1,933	20.14
	0.00	0	23	11.05	227.50	0.15	199,111	-722	21.30
	0.00	31	148	13.30	225.00	0.10	86,846	1,266	2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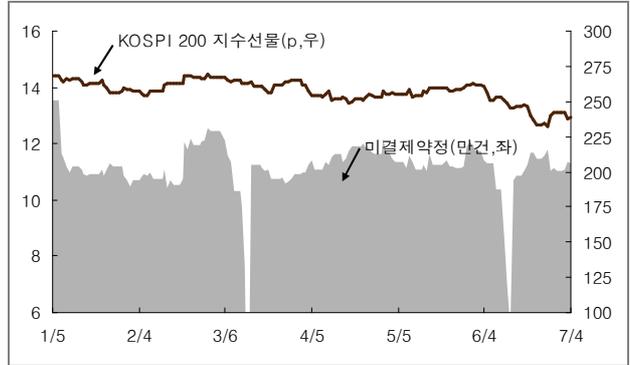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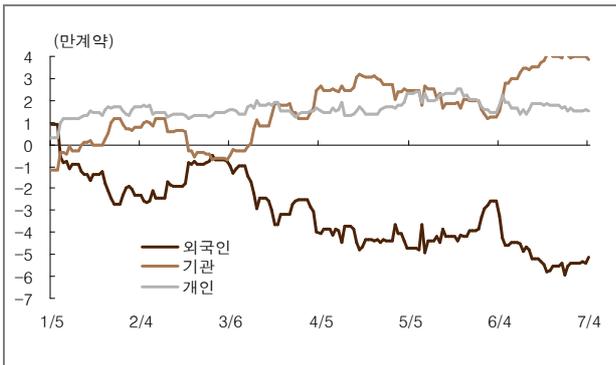
- 평균 Basis: 1.00 (전 거래일 대비 0.57 상승)
- 이론 Basis: 1.25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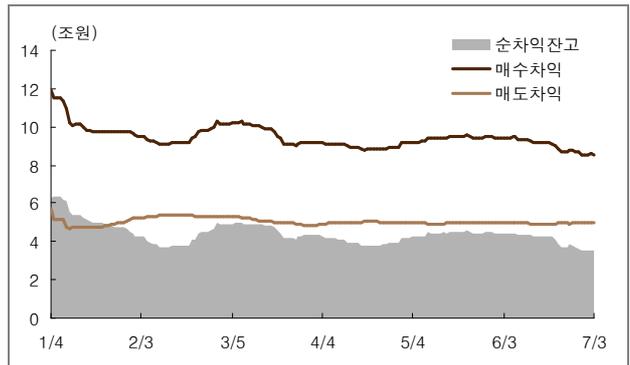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794 계약 감소한 112,744 계약
- 선물가격(239.30): 전 거래일 대비 1.85p 상승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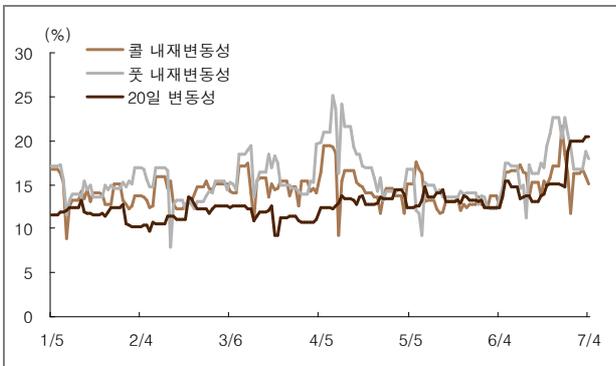
- 외국인: 2,281 계약 순매수
- 기관: 1,514 계약 순매도 / 개인: 826 계약 순매도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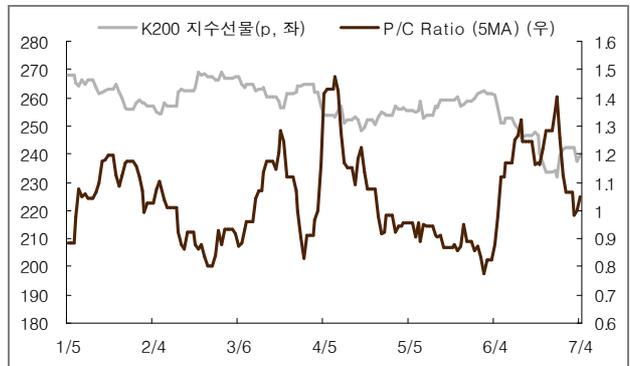
- 차익거래: 5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1,053 억원 순매수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5.1% / 풋 18.0%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20.49%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05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3년 6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4	25	26	27	28
美> 5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0.30, -0.10, -0.53)	韓> 6월 소비자기대지수 (105, n/a, 104) 美> 5월 내구재 주문 (3.6%, 3.0%, 3.5%) 4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152.37, n/a, 148.32) 6월 소비자기대지수 (81.4, 75.1, 74.3) 5월 신규주택매매 MoM (2.1%, 1.3%, 3.3%)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3.0%, n/a, -3.3%) 1분기 GDP QoQ (1.8%, 2.4%, 2.4%)	韓> 5월 경상수지(단위: 미국\$백만) (8,639, n/a, 3,972)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4.6만, 35.0만, 35.4만)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296.5만, 295.3만, 296.6만) 5월 미결주택 매매 MoM (6.7%, 1.0%, -0.5%) 유럽> 6월 유로권 소비자기대지수 (-18.8, -18.8, -18.8)	美> 6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84.1, 83.0, 82.7) 日> 5월 국내 CPI YoY (-0.3%, -0.4%, -0.7%) 5월 산업생산 YoY (-1.0%, -2.3%, -3.4%) 5월 자동차생산 YoY (-6.2%, n/a, -6.5%)
7/1	2	3	4	5
韓> 6월 소비자 물가지수 MoM (1.0%, 1.1%, 1.0%) 6월 HSBC 제조업 PMI (49.4, n/a, 51.1) 6월 무역수지(백만 달러) (5,516, 5,265, 5,916) 美> 6월 Markit PMI 최종 (51.9, 52.3, 52.2) 6월 ISM 제조업지수 (50.9, 50.5, 49.0) 유럽> 6월 유로존 제조업 PMI (48.8, 48.7, 48.7) 中> 6월 HSBC 제조업 PMI (48.2, 48.3, 49.2) 6월 제조업 PMI (50.1, 50.1, 50.8) 日> 2분기 단기간 대형 제조업 지수 (4, 3, -8) 6월 자동차 판매 YoY (-15.8%, n/a, -7.3%)	美> 6월 총 차량판매(만 대) (1,589, 1,530, 1,524) 7월 IBD/TIPP 경기낙관지수 (47.1, 49.1, 49.0) 유럽> 6월 유로권 PPI MoM (-0.3%, -0.2%, -0.6%)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11.3%, n/a, -3.0%) 6월 ADP 취업자변동 (18.8만, 16.0만, 13.4만) 6월 ISM 비제조업지수 (52.2, 54.2, 53.7)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4.3만, 34.5만, 34.8만)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293.3만, 295.8만, 298.7만) 유럽> 6월 유로존 서비스 PMI (48.3, 48.6, 48.6) 5월 유로존 소매판매 MoM (1.0%, 0.1%, -0.2%) 中> 6월 HSBC 비제조업 PMI (51.3, n/a, 54.3) 6월 비제조업 PMI (53.9, n/a, 51.2)	유럽> ECB 금리 공시 (n/a, 0.50%, 0.50%)	美> 6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n/a, 16.5만, 17.5만) 6월 실업률 (n/a, 7.5%, 7.6%)
8	9	10	11	12
유럽> 7월 섀닉스 투자자기대지수 日> 5월 경상수지 YoY 5월 무역수지 - BOP 기준	美> 6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5월 도매판매 MoM 日> BoJ 재정정책 발표 BoJ 정책금리	韓> 5월 M2 SA 6월 실업률 SA 6월 은행가계대출 (KRW, 조)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FOMC 의사록 공개 日> 6월 소비자 기대지수	韓>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유럽> 5월 유로권 산업생산 wda MoM 日> 일본은행 정책금리 발표	美> 6월 생산자물가지수 MoM 유럽> 5월 유로권 CPI MoM 日> 6월 산업생산 MoM, YoY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